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October 2024 Issue | Vol. 77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감소 —page 1
- 메탈코, 삼성 원자력 에너지 계약 체결 —page 2-3
- RFID 벌금은 합법적인 도둑질이라고 FFW가 말하다 —page 3-4
- 2025년 농업 성과 개선 전망 —page 4-5
- 올해 목표치 이하의 성장 가능성 —page 5-6
- 투명성이 필리핀의 투자 허브 매력을 강화할 것이다. —page 7

UPCOMING EVENTS

[Oct 18, 2024] A Joint Event of
Rotary Intl D3810-BNI- KCCP |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행사
— page 7-8

[Oct 24, 2024] 13회 아랑카다 필리핀 포
럼 | 레벨 업: 기술 향상, 규모 확대.
삶의 질 향상 — page 9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감소

October 15,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은 2024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VAT) 환급 지연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순유입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은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이 2022년 95억 달러에서 7% 감소한 8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은 2023년 ASEAN 회원국 중 금액 기준으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필리핀은 순유입 1,600억 달러를 기록한 싱가포르, 216억 달러의 인도네시아, 185억 달러의 베트남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88억 달러를 기록한 말레이시아, 45억 달러의 태국, 40억 달러의 캄보디아, 22억 달러의 미얀마, 18억 달러의 라오스(PDR)를 상회했습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은 2023년 5,70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ASEAN 지역의 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작년 2,300억 달러로, 2022년 2,290억 달러에서 0.3%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제조업과 재생에너지(RE)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투자 감소를 보였습니다.

"유럽 기업이 참여한 대규모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켰다"고 보고서는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이전에 40%로 제한했던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외국인 소유권을 전면 허용한 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A Philippine flag is seen along
Aguinaldo Highway in Imus City. —
PHILIPPINE STAR/EDD GUMBAN

그러나 필리핀 정부의 부가가치세(VAT) 환급 지연 문제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고서는 "부가가치세(VAT) 환급과 관련된 문제로 일부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면서, 투자 감소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은 세법 제12조에 따라, 매출이 영세율 적용을 받는 VAT 등록 기업이 세금 공제 증명서 발급 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법(CREATE 법)과 그 시행 규칙 및 규정 간의 불일치로 인해, 등록된 기업의 현지 구매에 대한 VAT 면제와 영세율 적용 문제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의회에서 비준된 CREATE MORE(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 극대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CREATE MORE에 따라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 환급을 제공하는 향상된 VAT 환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재무부가 국세청(BIR)과 관세청에 VAT 환급 센터를 설립하여, 공제 가능한 매입세의 전자 처리 및 환급을 담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Cont. page 2]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감소

[Cont. from page 1]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은 2024년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이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ASEAN 내에서 2022년 60건이었던 5억 달러 이상의 메가딜 또는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 수가 작년엔 3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작년 이 메가딜의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절반(19건)은 전력 생산, 배터리 생산, 주요 광물 채굴 및 가공과 같은 재생에너지(RE) 관련 활동에 속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연평균 27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광물의 채굴 및 가공, 재생에너지 제조, 재생 가능 전력 생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5개의 거래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였습니다. 상위 20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는 블루플로트 에너지의 필리핀 해상 풍력 포트폴리오로, 약 380억 달러의 비용이 예상되었습니다.

전망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ASEAN 지역의 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신규 투자 발표의 강력한 성장, 지속적인 지역 통합,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지역의 FDI 전망은 밝습니다"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금리 안정화는 또한 전 세계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다국적 기업들은 높은 이익을 계속 보고하고 있으며, 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 환경 개선과 투자 기회 확대에 의해 향후 몇 년간 이 지역에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경쟁,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금융 긴축, 인플레이션 압력, 지정학적 긴장 등은 이 지역으로의 FDI 유입을 저해할 수 있는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또한, 흡수 능력의 제한, 기술 개발 부족 등 내부적인 도전 과제는 여전히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기적인 구조적 도전 과제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깊은 통합과 ASEAN 경제공동체 2025 이후의 투자 친화적인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ASEAN 투자 보고서는 ASEAN 사무국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작성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0/15/627731/delays-in-vat-rebates-dampen-net-inflows-of-fdi-to-the-philippines/](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0/15/627731/delays-in-vat-rebates-dampen-net-inflows-of-fdi-to-the-philippines/)

메탈코, 삼성 원자력 에너지 계약 체결

October 15, 2024 | Brix Lelis | The Philippine Star

필리핀 마닐라 — 메탈코(Manila Electric Co.)는 재벌 마누엘 V. 팡길리난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필리핀에서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재벌 삼성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메탈코와 삼성 C&T(삼성 건설)는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마닐라 방문 중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양사는 원자력 기술의 기술 설계 및 역량, 현재의 규제 체계, 에너지 환경 및 필요한 전력망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ont. page 3]



Bataan Nuclear Power Plant.
STAR / File

메탈코, 삼성 원자력 에너지 계약 체결

[Cont. from page 2]

양측은 또한 시범 프로젝트의 잠재적 배치를 포함하여 원자력 발전 개발을 위한 기타 기회를 탐색할 예정입니다.

팡길리난은 이 전략적 협정이 메탈코의 원자력 에너지를 국가의 전력 생산 믹스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더 강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차세대 기술의 안전하고 보안된 채택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포괄적 성장을 달성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팡길리난은 말했습니다.

필리핀 에너지 계획에 따라 필리핀은 2032년까지 1,200 메가와트의 원자력 용량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2,400 메가와트, 2050년까지 4,800 메가와트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삼성 C&T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 프로젝트 건설에 적극 참여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는 메탈코가 글로벌 지식 및 기술 파트너와 협력하여 보다 다양화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잘 맞아떨어집니다”라고 메탈코의 부사장 겸 COO인 로니 아페로초가 말했습니다.

앞서 메탈코는 또 다른 한국 기업인 두산 에너지빌리티(DooSan Enerbility Co. Ltd.)와 원자력을 포함한 저탄소 전력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메탈코와 두산은 필리핀 내 원자력 시설의 잠재적 배치 가능성을 탐색하며, 바타안 원자력 발전소의 재활성화도 포함됩니다.

이번 계약에는 메탈코의 자회사의 복합 사이클 전력 프로젝트를 위한 가스 터빈의 잠재적 건설 및 공급도 포함되며, 두산은 이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 계약자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10/15/2392492/meralco-samsung-forge-nuclear-energy-deal](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10/15/2392492/meralco-samsung-forge-nuclear-energy-deal)

RFID 벌금은 합법적인 도둑질이라고 FFW가 말하다

October 13, 2024 | Justine Xyrah Garcia | BusinessMirror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파 주파수 식별(RFID)이 없거나 잔여 금액이 부족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법화된 도둑질의 일종이라고 자유노동조합연맹(FFW)이 토요일에 밝혔습니다.

FFW 부회장 준 라미레즈는 보도자료에서 계획된 벌금이 이미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RFID 태그나 충분한 잔여 금액이 없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소득층 운전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통행료 도로는 직장과 일상적인 통근에 필수적이며, 이 벌금은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합니다”라고 라미레즈는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벌금은 모든 고속도로에서 비접촉식 통행료 징수를 시행하기 위한 교통부(DOTr)의 더 넓은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당초 2024년 8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벌금은 두 차례 연기되어 첫 번째로 2024년 10월, 두 번째로 2025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공동 메모랜덤 서클 No. 2024-001에 따르면, 작동하지 않는 RFID 태그가 없는 자동차 소유자는 반복 위반 시 최대 5,000 페소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계좌에 잔여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최대 2,500 페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 혼잡 완화 및 통행료 징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RFID 시스템은 결함 있는 태그 리더기 및 신뢰할 수 없는 충전 방법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FFW와 같은 옹호 그룹은 통행료 규제 위원회(TRB)가 운전자의 전반적인 경험 개선보다는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Cont. page 4]

RFID 벌금은 합법적인 도둑질이라고 FFW가 말하다

[Cont. from page 3]

“기반 시설 및 고객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는 대신, TRB는 벌금과 수수료를 징수할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라고 라미레즈는 말했습니다.

그는 현금이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법적 통화의 가치를 훼손하며, 이를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TRB, DOTr, 심지어 대통령실조차 현재까지 이 그룹의 불만을 무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FFW는 2025년 1월의 벌금 부과가 시행될 경우 이러한 벌금의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age credits: [Nonoy Lacza](#)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0/13/rfid-fines-legalized-theft-says-ffw/>

2025년 농업 성과 개선 전망

October 15, 2024 | Jed Macapagal | Malaya Business Insight

Growth of value of production Agriculture & fisheries, in %, quarterly						
Subsector	2022-2023				2023-2024	
	Q1	Q2	Q3	Q4	Q1	Q2
Crops	1.7	1.2	-0.2	0.3	-0.3	-8.6
Livestock	4.1	0.7	2.5	2.7	-3.5	-0.3
Poultry	3.2	1.5	2.9	7.8	5.9	8.7
Fisheries	0.5	-13.8	-6.1	-5.3	-0.2	2.2
AGRICULTURE AND FISHERIES	2.1	-1.2	-0.2	0.9	0.2	-3.3

Source: PSA

농업은 올해 고유가 및 투입 비용, 라니냐에 따른 가뭄과 홍수, 가치 사슬의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5년에는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농업 생산량은 3.3% 감소했습니다.

농업부(DA)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의 도전에서 얻은 교훈은 내년에 더 나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A 장관인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 주니어는 이러한 도전이 DA의 임무인 식량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DA의 역량을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티우 로렐은 2023년 기록적인 쌀 수확과 5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긍정적인 추세가 지속되어 이 부문이 850만 톤의 벼와 370만 톤의 옥수수를 수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티우 로렐은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부문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회가 농업 경제 파괴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전부터 농업부는 검사 및 단속 사무소를 통해 밀수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수억 페소 상당의 불법 수입품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라고 티우 로렐은 말했습니다.

농업부는 새로운 법안의 통과로 밀수, 이윤 추구, 카르텔 및 비축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티우 로렐은 DA가 가금류 및 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5]

2025년 농업 성과 개선 전망

[Cont. from page 4]

앞으로 농업부는 기후 변화와 진화하는 기술이 제기하는 도전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농업 생산 가치는 0.4% 증가했습니다.

한편, 농업부는 필리핀 농작물 보험공사(PCIC)가 슈퍼 태풍(ST) 줄리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세 지역의 농민을 보상하기 위해 9,380만 페소의 보상금을 초기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PCIC의 회장 조비 베르나베는 농업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코르디레라 행정지역(CAR), 일로코스 및 카가얀 밸리 지역의 쌀, 옥수수 및 고부가가치 작물의 총 10,781명의 보험에 가입된 농민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우 로렐은 “농민들의 재정적 건강을 회복하여 이 재난에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즉시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의 신속한 처리는 농민들 사이에서 PCIC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에 대한 더 많은 투자자를 유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CIC에 보험에 가입된 농민 중 6,585명은 일로코스 출신이고, 2,355명은 CAR 출신이며, 1,841명은 카가얀 밸리 출신입니다.

농업부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 운영 센터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7일 현재 ST 줄리안으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액은 6억 7,380만 페소에 달합니다.

농업부는 피해 비용이 33,110명의 농민과 어업인이 17,344 헥타르의 피해 지역에서 관리하는 25,407 미터 톤(MT)의 물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agriculture-seen-performing-better-in-2025/](https://malaya.com.ph/agriculture-seen-performing-better-in-2025/)

올해 목표치 이하의 성장 가능성

October 15,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6-7% 목표 범위 이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가들은 전했습니다.

“경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재정 긴축과 약한 수출 수요가 성장률을 억제할 것”이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올해 GDP 성장률이 평균 5.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정부의 6-7% 목표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노무라 글로벌 마켓 리서치도 올해 GDP 성장률이 평균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GDP 성장률이 작년 5.5%에서 2024년에는 5.6%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며, 2025년에는 6.1%로 증가할 것으로 유지합니다”라고 노무라 연구 분석가인 유벤 파라쿠엘레스와 나빌라 야마니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상반기에 6% 성장했습니다. 목표의 하한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올해 동안 GDP 확장이 평균 6%에 도달해야 합니다.

3분기 경제 데이터는 11월 7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노무라는 2분기 성장률이 “실망스러웠으며, 개인 소비의 또 다른 연속적인 감소에 의해 성장 모멘텀이 약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2분기 GDP는 6.3% 증가했으며, 이는 1분기의 5.8%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보다 빠른 성장입니다. 그러나 가계 최종 소비는 4.6% 증가하며, 작년의 5.5%에서 둔화되었습니다.

“공공 투자 지출은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여전히 주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중간 선거는 내년에도 추가적인 자극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노무라는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인플레이션은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2-4% 목표 범위 내에 잘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Cont. page6]



People flock to Divisoria, Oct. 12, 2024.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올해 목표치 이하의 성장 가능성

[Cont. from page 4]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합니다... 우리의 예측은 약한 경제 성장과 하락하는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의 조합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말했습니다.

노무라는 올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평균 3.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중앙은행의 연간 3.4% 전망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의 예측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4분기 동안 약 1.9%로 낮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이는 쌀 수입 관세 인하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9월에 3.3%에서 1.9%로 4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첫 아홉 달 동안 인플레이션은 평균 3.4%였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8월 중순 6.25%로 25bp(기준 포인트) 인하한 후, 인플레이션의 추가 하락은 BSP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우리의 관점을 강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통화 위원회는 이번 주(10월 16일) 정책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예정된 회의에서 또 다른 25bp 인하를 기대합니다”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BSP가 올해 마지막 두 차례 회의(즉, 10월과 12월)에 각각 25bp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을 반복합니다”라고 노무라는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 실시된 비즈니스월드 여론조사와 일치하며, 19명의 분석가 중 16명이 BSP가 목표 역환매(RRP)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현된다면, 이는 목표 RRP 금리를 현재 6.25%에서 6%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수요일 회의 이후에도 올해 남은 기간과 2025년에 걸쳐 추가 인하를 기대합니다. 내년 금리가 4.75%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를 일반적인 전망보다 더 비둘기파적하게 만듭니다”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말했습니다.

2025년 추가 인하

한편, 노무라는 통화위원회가 내년 첫 세 차례 회의에서 각각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후에는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2025년 5월까지 RRP(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5%로 낮추게 되며(즉, 이번 사이클에서 총 150bp 인하), 계속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BSP의 완화 조치를 지지하지만, BSP가 50bp 단위로 공격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당한 지급준비율(RRR) 인하는 이미 추가적인 완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레물로나 총재는 정책 금리에 대해 25bp 인하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BSP는 10월 25일부터 상업은행 및 준은행 기능을 가진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9.5%에서 7%로 250bp 인하할 예정이다.

BSP 엘리 M. 레물로나 주니어 총재는 앞서 자신의 임기 종료 시점까지 지급준비율을 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라는 정부가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2024년 GDP의 5.9%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수정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MTFF) 목표인 5.6%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MTFF 목표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지출 우선순위로 인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8개월 동안 예산 적자는 4.86% 감소하여 6,970억 페소에 달했다.

올해 예산 적자 상한선은 GDP의 5.6%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2028년까지 적자 대비 GDP 비율을 3.7%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출 집행은 연말로 갈수록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수익 성장은 보다 완만한 GDP 성장에 따라 둔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노무라는 덧붙였습니다.

“수입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시행하는 법안의 통과는 고무적이지만, 내년 GDP의 0.1%에 불과한 작은 수익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더 큰 재정 개혁 조치를 시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0/15/627732/below-target-growth-likely-this-year/>

투명성이 필리핀의 투자 허브 매력을 강화할 것이다.

October 15, 2024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은 아세안 포괄적 투자 협정(ACIA)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내 투자 허브로의 준비 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협약은 투자자들이 필리핀에서 투자 가능한 분야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글로벌 경제 및 전략적 제조 허브의 리더가 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라고 크리스티나 로케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장관이 지난 10월 9일 라오스에서 체결한 ACIA 개정 제5 프로토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로케 장관은 아세안 전체가 여러 경제 통합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 차관 앨런 겐티는 이번 프로토콜이 필리핀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겐티는 제5 프로토콜에 따라 예약 일정의 제출이 어떤 분야가 투자에 열려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큰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접근 제한이나 제약이 있는 분야는 적절하게 목록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는 고급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협약을 추구하는 국가의 정책과 일치합니다,"라고 겐티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ACIA가 국가의 투자 허브로서의 준비 상태를 투자 커뮤니티에 강하게 알리는 신호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사무국은 이 프로토콜이 아세안의 투자 체제에 대한 투자자에게 확실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의 목표는 ACIA가 여전히 관련성이 있고 현대적이며 미래 지향적이며 비즈니스 환경에 더욱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토콜은 현재의 단일 부속 ACIA 예약 목록을 두 개의 부속 부장 목록으로 전환하는 운영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ACIA 개정 제4 프로토콜에 따라 성능 요구 사항 금지 의무에 대한 예약이 포함되며, ACIA의 범위 확대 및 일부 회원국에 대한 거치식 메커니즘의 적용이 포함됩니다.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2023년 2300억 달러로 1% 미만 증가하여 또 다른 기록적인 해가 되었다고 아세안 투자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내 투자액은 35% 감소하여 22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이 감소하는 아세안 내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transparency-to-enhance-phs-attractiveness-as-investment-hub/>

[UPCOMING EVENT]

A Joint Event of Rotary Intl D3810-BNI- KCCP |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행사

October 18, 2024 | SMX Convention Center, Pasay City

KCCP는 PPC 로터리 인터내셔널 D3810 및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추천 조직 중 하나인 BNI 필리핀과 협력하여 2024년 10월 18일 오후 5시 30분에 파사이시 SMX 컨벤션 센터 2층에서 비즈니스 매칭/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등록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행사에는 400명 이상의 국내외 비즈니스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여러분의 지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투자자 및 구매자와 연결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의 회장인 서릴 키타나 씨와 BOI(투자 위원회)의 전무 이사인 보비 폰데빌라 변호사가 행사 중 게스트 스피커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모든 참석자 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경품 추첨도 있을 예정이며, 행사 수익금은 지역 복지 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므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KCCP 회원 및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권장합니다.

등록 비용은 2,000페소입니다(식사, 음료 및 참가자 키트 포함). 이 행사에 대한 질문이나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KCCP에 +632-8885-7342로 연락하시거나 모바일 번호 0917-8015920 (Chi 씨) / 0915-8887296 (Sang 씨)로 연락하시거나 이메일 info@kccp.ph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joint event

**PPC ROTARY INTL. D3810
BNI - KCCP**

OPEN TO ALL

BUSINESS MATCH MAKING EVENT



JHAY JANG
(PPC) RID 3610
CHAIRMAN



DEXTER ORTEGA
BNI Philippines
National Director



HYUNCHONG JOSEPH UM
Korean Chamber and
Commerce Philippines (KCCP)
President

OCT 18, FRI | 5:00PM | SMX Convention Center, Pasay City

GUEST SPEAKERS: **SHERILL QUINTANA**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
Chairman

ATTY. BOBY FONDEVILLA
Board of Investments Philippines
Executive Director

REGISTER NOW

P 2,000/ Pax
(Early Bird Rate until Oct 10)

Registration fee is Php 2,000.00 (includes food, drinks, raffle and participant kits).
For confirmation, kindly contact KCCP at +632-8885-7342, or mobile numbers
0917-8015920 (Ms. Chi) / 0915-8887296 (Ms. Sang) or through email
at info@kccp.ph.

PROCEEDS WILL BENEFIT THE TULOY FOUNDATION



2024 | THE ARANGKADA PHILIPPINES FORUM

LEVEL UP

UPSILL. UPSCALE. UPLIFT.

OCTOBER 24, 2024
 Marriott Grand Ballroom

REGISTRATION ONGOING

The 13th *Arangkada* Philippines Forum convenes various stakeholders to explore perspectives on upskilling and upscaling human capital to accelerate the country's growth.

It identifi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labor market posed by shifting demographics and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with a focus on key economic sectors like agriculture, mining, manufacturing, and other emerging industries. It also aims to advocate for much-needed reforms that can pave the way for a future-ready workforce and uplift the lives of Filipinos.

As in previous years, representatives from government, experts, industry leaders, and members of the busines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will be invited to deliver keynote speeches and provide their insights in the panel discussions.

FORUM AGENDA

- PANEL 1**
UPSILL: ADAPTING TO A NEW WORKFORCE
- PANEL 2**
UPSCALE: STRENGTHENING THE BACKBONE OF OUR VALUE CHAINS
- PANEL 3**
UPLIFT: NURTURING TALENTS FOR THE FUTURE

REGISTRATION RATES

Regular Rate September 1 to October 25	PHP 6,500
JFC-Member Rate Individual members of any of the Chambers represented by the Joint Foreign Chambers of the Philippines (JFC).	PHP 5,500
Group Rate Group of five (5)	PHP 27,500



SCAN ME

REGISTER NOW!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event website at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4 to register.

For inquiries, please reach out to Ms. Alyx Flojo at alix.flojo@tbc-ph.com or +63 968 230 1040.

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

[/ArangkadaPhilippines](#)

SPONSORS AND PARTNERS

GOLD



SILVER



BRONZE



EVENT PARTNERS



OFFICIAL VENUE PARTNER



ORGANIZER

CO-ORGANIZED BY:



SUPPORTED BY:



필리핀 외국 상공회의소(Joint Foreign Chambers of the Philippines)는 2024년 10월 24일 파사이시의 마리엇 그랜드 볼룸에서 제13회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을 개최합니다.

13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인적 자본의 업스킬링과 업스케일링에 대한 관점을 탐구하여 필리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Level Up: Upskill. Upscale. Uplift."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인구 통계의 변화와 빠른 기술 발전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기회와 도전에 대해 탐구하며, 농업, 광업, 제조업 및 기타 신흥 산업과 같은 주요 경제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비한 인력을 양성하고 필리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개혁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CCP는 이번 행사에 10석이 있는 테이블을 마련했으며, 각 티켓은 할인된 가격인 5,500 페소에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4를 방문하시거나, 본 행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632-8885-7342로 연락하시거나 이메일(info@kccp.ph)로 문의하시거나 Ms. Chi(0917-801-5920)와 Ms. Sang(0915-888-729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GV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SGV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How can the technology that has shaped our world, now save it?

Business has the power to harness data and technology to create value for business, society and the planet.

Value-led sustainability is everybody's business. Make it yours.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
www.sgv.ph



Scan to access
SGV's Sustainability
Report, Doing Business
and other publications